

목포시, 세월호 선체 고하도 거치 설문...찬성 74%



목포시가 세월호 선체 고하도 거치 관련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의견이 74%로 나타났다. 시는 정부의 세월호 선체 거치

시민·사회단체·학생 등 온·오프라인 시민 대상 조사 안전·교육 공간-기억·추모 공간 순으로 시설 조성 원해

장소 후보지 논의 중 목포의 고하도 신항 배후부지(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 인근)가 유력한 장소로 거론됨에 따라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온·오프라인으로 실시했다. 시민·사회단체·유관기관·학생·일반시민 등 13,092명(시 인구의 5.8%)이 설문

에 참여해 찬성 74%, 반대 26%로 결과가 집계됐다.

세월호 선체 고하도 거치를 찬성하는 이유로 생명·안전·교육 공간 조성, 새로운 관광자원 활용, 선체 인양 인근지역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고하도에 거치 시 여점을 두고 조성되어야 할 부분으로는 안전교육·체험 인프라 확충과 추모·기억공간으로 조성, 고하도 연계개발 등이 꼽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세월호 선체 고하도 거치에 대한 시민의 긍정적인 의견을 알게 되었다"며 "설문조사 결과를 정부에 전달해, 고하도로 확장될 경우 시설 조성에 시민의견이 반영되도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세월호 선체 거치 장소에 1,500억원 이상을 투입하여 국민 안전교육·체험시설과 전시공간 등을 조성하고 인근은 주변한

경과 잘 아우러지는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선체 원형은 복원하여 물위에 띄우는 형태로 전시하고 선체 일부는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해 방문객들에게 안전에 관한 교훈을 줄 수 있는 시설로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시설 설치와 운영은 국가가 직접 추진해 시의 재정 부담이 없고 대다수 시민들이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고하도에 안전체험시설과 공원이 조성되어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목포=박정수 기자

함평군농기센터, 신제품 '나비연옥황' 품종보호권 획득

황색 국화분재 품종 중 가장 우수한 형질 가져

함평군은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 개발한 국화분재 신제품이 국립종자원으로부터 품종보호권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군이 등록한 신제품은 '나비연옥황'으로, 황색의 국화분재 품종 중에서 가장 우수한 형질을 가지고 있다.

특히 교잡육종 방식으로만 개발되던 이전 신제품들과는 달리 화색돌연변이 육종 방식으로 재배돼 앞으로 다양한 색깔의 국화

분재 품종이 개발될 수 있게 됐다. 앞서 군은 지난 2009년부터 지역 국화축제인 국화대전의 성공 개최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국화류 품종보호권 등록을 본격화했다.

이듬해인 2010년에 자체 개발한 '국향만홍'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국화분재 11종, 현애국 6종, 화단국 4종 등 총 21종의 국화류 품종보호권을 획득했다.

특히 이번 '나비연옥황'은 품종보호권을 획득한 국내 국화분재 신제품 중에서 방사선 돌연변이 육종 방식이 쓰인 전국 최초의 케이스로 알려지면서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군은 지난 2015년 자체 개발한 나비연옥(흰색 국화)에서 꽃 색깔만 바뀐 국화를 선발하는 데 성공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 연구소에 의뢰해 저준위 감마선 50(Gy/hr) 선량을 24시간 조사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후 2018년부터 2년간 국립종



자원에서 재배실험과 특성검정 등의 과정을 거쳐 이달 초 품종보호권 등록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군은 국제식물신제품보호연맹(UPOV)의 관련 협약에 따라 향후 20년간 해당 품종에 대한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갖게 됐다.

함평=김광춘 기자

'1004섬' 신안, 멸종위기Ⅱ급 검은머리물떼새 천혜의 번식지

"압해·안좌·지도 등 관내 연안 48개 무인도서 99쌍 번식 확인"

신안군은 관내 무인도서의 생물자원 발굴과 서식지 보전을 위한 무인도서 조류조사 결과 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인 검은머리물떼새가 99쌍이 번식하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검은머리물떼새는 유럽과 동아시아에서 번식하고 한국, 중국, 남아시아 등지에서 월동하며, 국내에서는 국지적으로 번식하는 드문 텃새이다. 보통 3개의 알을 낳아 암수가 교대로 포란한다. 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 및 천연기념물 326호로 지정된 보호종이다.

관내에서 번식하는 검은머리물떼새는 주로 서식지인 신안 압해도 인근 갯벌에는 가을, 겨울철 비번식기에 검은머리물떼새 약 500여 개체가 이상이 먹이활동을 하며 월동한다. 따라서 올해 조사되지 않은 갯벌과 인접한 무인도서 등을 감안하면 신안에는 보다 많은 검은머리물떼새가 번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향후 지속적 조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번 결과는 앞으로 검은머리물떼새의 국내 개체군과 서식지 보전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서남해안에 드물게 나타나는 희귀한 새로 알려져 왔으나 1971년 인천 강화도에서 처음 번식이 확인된 이후 서해안의 작은 무인도에서 번식이 확인되고 있다.

점차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는 검은머리물떼새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번식규모 등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검은머리물떼새의 국내



영암군, 시책제안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내달 31일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 홈페이지 사전 신청

영암군은 내년(2021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군정 시책사업 등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를 8월 31일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을 받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는 제도로서, 주민자치 이념을 재정분야에서 구현하는 새로운 지방거버넌스의 한 형태로 참여 민주주의 실현, 지방정부와 지역주민 간 새로운 소통 경로 개선 등으로 의미를 더하고

있는 제도이다.

주민들이 지역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사업이나 시책제안이 가능하며,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객관적 합리성,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하게 된다.

군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 건의 등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각 읍·면사무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되고, 군 홈페이지(군민참여예산방)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영암=조대호 기자

무안군, 생활쓰레기봉투 배출 무게제한

100리터 종량제봉투 폐지...압축기 사용금지 조치도 시행

무안군은 지난 7월 1일부터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쓰레기봉투 배출 무게제한과 100리터 종량제봉투 폐지 등을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읍소 및 사업장에서 종량제봉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압축기를 사용해 부피를 줄여 쓰레기를 눌러 담아 30~40kg에 육박하는 무게로 배출하는 일이 잦아 이를 수거하는 환경미화원이 쓰레기 수거에 애로사항이 많다.

따라서 무안군은 쓰레기봉투 배출시 50리터는 13kg이하, 75리터



는 19kg이하로 무게를 제한하였으며 압축기 사용을 금지하였다. 또한 취급 위험 폐기물 배출방법을 명시하여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각 폐기물별 수거일과 배출시간,장소, 방법을 조정하였다.

무안=이기성 기자

코로나19 극복
대숲맑은 담양
공동브랜드
함께해요!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의 청정자연에서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수확한 건강한 우리 농산물과 함께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을 기원합니다.